

부부동반 중국 외유성 출장도 해명하십시오.

쌍용차 기술유출 중국인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김 후보와 설 여사는 부부동반 중국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도 해명하십시오.

2009년 7월은 쌍용자동차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당시 경기도지사 김 후보와 설 여사는 부부동반으로 중국 쿤밍으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였지만 실제 일정에는 항주 임시정부청사 관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쌍용차 대규모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는데, 정작 단체장은 유소년 축구 예선전과 항주 유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쿤밍만이 아닙니다. 북경 출장의 경우도 올림픽 선수단 격려를 이유로 삼았지만, 당시 일정표에는 자금성과 북해공원, 경산공원, 순의 수상공원 등 소위 관광지 관람도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설 여사의 비용 부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 여사는 관용차는 상상도 못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본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올림픽 선수단 관람차, 유소년 예선전 응원차, 김 후보와 함께 중국 곳곳을 다니며 유람일정이 포함된 외유를 떠났습니다.

대체 어떤 특권의식이기에 이처럼 대놓고 내로남불을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대통령 내외가 전 세계를 외유하며, 때로는 쇼핑으로 때로는 구설수로 국격을 훼손시킨 지난 3년을 겪었습니다. 또 다시 김문수 설난영 부부유랑단을 우리의 대표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답변을 피하고 있는 김 후보와 설 여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쌍용차 피의자 중국인의 도피성 출국 지원 의혹과 중국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2025년 5월 2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